

# ‘플랫폼 택시’ 전성시대 열린다...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

**운송 플랫폼사업 제도권으로...모빌리티 혁신 추진**  
**플랫폼 운송사업 3가지 유형 구분...운송·가맹·중개**  
**운송사업자는 매출액의 5% 안정기여금 납부해야**  
**국토부 “더욱 고도화된 택시 서비스 시장 출시될 것”**

택시산업과 플랫폼 결합이 활성화된다. 이를 통해 브랜드 택시의 양적 확산과 고도화된 택시 서비스 등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은 기존의 운송업 체계를 개편해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3가지 유형(플랫폼 운송사업·플랫폼 가맹사업·플랫폼 중

개사업)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롭게 영역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의 경우 사업자가 차량과 플랫폼을 직접 확보해 운송업을 하는 형태다.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기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매출액의 5%(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원 중 하나도 선택 가능)를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안정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300대 미만 중소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25~50% 수준으로 감면해준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요금규제·사업구역 제한·외관규제와 차량확보 방식(렌터카 가능)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이러한 완화된 규제 환경 아래에서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을 빠르게 개발·출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발급은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될 예정으로, 심의위원회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소비자·종사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여부, 지역별 수송력 공급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심의할 예정이다.  
 플랫폼 가맹사업(Type2)은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해 유상운송을 제공하는 사업 형태다. 정부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기존 택시 요금 규제의 적용 없이 요금 자율신고제



로 운영할 예정이다.  
 예약·호출형태로 운행되는 플랫폼 가맹택시는 요금 자율신고제를 기반으로 월 구독형 요금, 사전확정 요금 등과 결합한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의 출시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간의 브랜드 택시 양적 확산 뿐 아니라, 서비스 모델의 고도

화 등 질적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  
 현재까지 카카오택시, 마카롱택시, 반반택시그린, 우버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 형태의 브랜드 택시 약 3만대가 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브랜드 택시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플랫폼 중개사업(Type3)은 중개 플랫폼을 통해 운송 서비스를 중개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여객자동차법 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등록 절차 등을 거친 후 안정적인 영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 시행 이후,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의 허가과 플랫폼 중개사업(Type3)의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법령에 따른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허가·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플랫폼 가맹사업(Type2)의 경우 기존 운송 가맹사업과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시·도에 사업이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이 외에는 해당 시·도에 면허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모빌리티 산업이 ICT 기술과 융합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여객자동차법령 개정·시행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새롭게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많이 출시되고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꼭지 없는 ‘스넥토마토’ 드세요** 7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들이 스넥 토마토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수확 단계에서부터 꼭지를 제거해 먹기 편하고 별도의 음식을 쓰러기가 발생하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스넥처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스넥 토마토’ (800g/박스)를 선보인다.

## ‘해외여행 대체지’ 제주 관광객, 더 머무르고 돈 더 썼다

**전체 여행객 92%인 개별 여행객 소비 규모 증가**  
**평균 체류 4.17일...해외 여행길 막힌 게 요인**  
**만족도 3.96점으로 떨어져...물가 불만족 가장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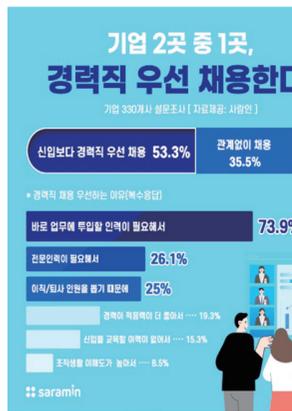
맑은 날씨를 보인 지난달 26일 오후 제주대학교를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왕벚꽃나무 아래서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줄었지만, 전년과 비교해 관광객들의 체류일수는 늘었고, 소비 금액도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관광객 실태 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관광객의 1인당 지출 경비는 50만8344원으로 전년(46만9039원)보다 3만7305원 증가했

다.  
 이 같은 결과는 전체 여행객의 92.2%를 차지하는 개별 여행객의 소비 금액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년과 비교하면 개별 여행객의 소비 규모는 식음료비(12만7999원→13만561원), 숙박비(7만9310원→11만5036원), 차량 임대비(3만6148원→5만6240원) 등 대부분 지출 분야에서 커졌다.  
 평균 체류 일수도 4.17일로 전년 대비 0.62일 늘어났다. 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주가 해외 여행 대체지로

부상하면서 체류 기간은 길어지고, 지출 비용은 올라간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사태는 제주 재방문율을 높이는 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작년 내국인 관광객 중 80%가 2회 이상 제주를 방문한 재방문객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전년 69.6%보다 10.4%포인트 높은 수치다. 5회 이상 방문율도 10%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재방문 의향 역시 5점 만점에 4.27점을 기록해 전년보다 0.90점 올랐는데, 사실상 해외 여행길이 막힌 상황에서 대체 여행지로 제주가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제주관광 만족도는 떨어졌다. 5점 만점 기준 3.96점을 나타냈는데, 2018년 4.10점, 2019년 4.09점과 비교해 3점대로 추락했다.  
 내국인 관광객 중 제주 물가에 대해 불만족한 비율이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광객 실태조사는 제주관광공사가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조사의 경우 34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조사와 비대면 현장 조사가 이뤄졌다.  
 고성원 제주관광공사 연구조사센터장은 “재방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관광지 방역에서도 제주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한 여행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 기업 절반 “신입보다 경력직 우선 채용”

기업 330개사 대상 ‘경력직 채용 선호도’ 설문조사한 결과



직의 경우 실무인력을 빠르게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가운데 기업들 절반은 경력직을 신입보다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사람이 기업 330개사를 대상으로 ‘경력직 채용 선호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력직을 신입보다 우선 채용한다”는 기업이 53.3%였으며 “관계를 미 고려한다”는 기업은 35.5%였으며 “신입 위주로 채용한다”는 기업은 11.2%에 불과했다.  
 경력직 우선 채용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업무에 투입할 인력이 필요해서’(73.9%·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해서’(26.1%), ‘이직·퇴

사 등의 이유로 빈 인원을 뽑기 때문’에(25%), ‘경력직이 적응력이 더 좋아서’(19.3%), ‘신입사원을 교육할 여력이 없어서’(15.3%), ‘조직생활 이해도가 높아서’(8.5%)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 결과 주로 ‘영업·영업관리’(23.9%·복수응답) 직무에서 경력직 채용을 선호했고 이어 ‘연구개발’(22.2%), ‘제조·생산’(18.2%), ‘기획·전략’(14.8%), ‘재무·회계’(14.2%) 등의 순이었다. 주로 신입 교육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직무였다.  
 경력직 채용은 ‘수시채용’(82.4%·복수응답) 방식으로 가장 많이 이뤄졌고 ‘내부추천’(19.9%), ‘취업 플랫폼 인재추천 서비스’(17%) 등의 순이었다.  
 최근 2년 새 경력직과 신입 채용 비율은 평균적으로 경력직 56%, 신입 44%였다. 또 기업 69.7%는 앞으로도 경력직 채용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동취재본부

##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9.3조...스마트폰·가전으로 웃었다

1분기 매출 65조·영업이익 9.3조로 잠정 집계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매출 6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4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잠정 영업이익은 9조3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4.19% 증가했다.  
 이 같은 잠정 실적은 증권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앞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실적 평균 예상치는 매출 61조5399억원, 영업이익 8조9058억원으로 전망했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부문은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며, IT·모바일(IM) 부문과 소비자가전(CE) 부

문이 기대 이상으로 선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월에 출시한 갤럭시노트 21이 출시 57일 만에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하는 등 스마트폰 판매 호조가 어닝 서프라이즈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또 갤럭시 버즈 등 마진율 높은 웨어러블 제품의 매출 상승에 따라 IM 사업부가 실적을 이끌었을 것으로 보인다.  
 CE 부문도 ‘비스포크’(BESPOKE)를 앞세운 생활가전 제품과 TV의 동반호조로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집

콕’ 수요 특수를 누르고, 북미·유럽 시장의 수요가 살아나 프리미엄 TV, 신가전이 선전했다는 것이다.  
 반면 반도체의 경우 미국 텍사스 정전 사태로 오스틴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면서 전분기 3조8500억원, 전년 동기 3조9900억원 대비 수익성이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잠정 실적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해 추정된 결과”라며 “아직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나기자

## 알바몬 “개발자 모시기 경쟁, 알바시장까지”

대기업과 주요 스타트업의 ‘개발자 모시기’ 경쟁이 아르바이트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 알바몬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대비 아르바이트 시급 인상폭이 가장 큰 직종 상위 10개 직종 중 7개 직종이 개발 관련 부문이 다수 포함됐다.  
 알바몬은 최근 올해 1분기 동안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업·직종별 아르바이트 시급 빅데이터 375만여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145개 알바 직종의 평균 시급은 1만153원으로 집계됐다. 이

는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시급인 1만299원 대비 1.2% 증가한 수준이다.  
 알바 시급 인상폭이 가장 컸던 직종은 ‘프로그래머’였다.  
 지난해에는 평균 1만669원으로 책정됐던 시급이 올해는 1만2670원으로 18.8% 올랐다.  
 특히 알바 시급 인상률 상위 10위 안에는 프로그래머 외에도 ▲캐릭터·애니메이션 디자인 15.2%(9549원→1만1004원·2위) ▲HTML코딩 12.5%(1만366원→1만1660원·3위) ▲웹·모바일 기획 8.9%(9698원→1만

